

'더 특별한 전북교육' 초석 다지기

전북자치도교육청 경영계획 보고

국과장·교육장 등 참석
서 교육감 "함께 힘 모아
당면 과제 풀어나가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21일 5층 회의실에서 서거석 교육감 주재로 국·과장, 교육장, 직속기관장 업무계획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보고회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감사관은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행정 구현, 엄정한 공직복무 확인, 중합청정도 우수기관 도약 등이다.

특히 청렴도 우수기관 도약을 위해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 등으로 TF를 구성해 중합청정도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 중등교육과는 개별 맞춤형 학습 지원으로 탄탄한 실력을 키우는 책임교육 실현을 목표로 △학생 맞춤형 교육을 위한 나라 찾아가는 교육과정 운영 지원 △교사 수업혁신을 통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1일 5층 회의실에서 서거석 교육감 주재로 국·과장, 교육장, 직속기관장 업무계획 보고회를 개최했다.

학생의 탄탄한 실력을 키우는 수업 운영 지원 △현장 중심 컨설팅으로 학생 성장을 돕는 평가와 기록의 내실화 지원 △학교 교육력 제고를 통한 모든 학생의 학력신장 실현 등을 제시했다.

이어 미래교육정책연구소는 적극성·신속성·시의성·현장성을 연구

소 변혁 4대 전략으로 삼아 교육정책 연구 및 개발, 교육동향 분석과 소통, 정책 네트워크 활성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서 교육감은 "경영계획 보고 자리를 만든 것은 각자가 맡은 역할을 뚜렷이 해주는 기회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전북의 교육력을 끌어 올리고, 더

특별한 교육으로 학생이 찾아오는 희망의 전북교육을 만들어가기 위해 부서장, 교육장, 직속기관장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함께 힘을 모아 전북교육이 안고 있는 당면 과제들을 하나씩 풀어나가자"고 강조했다.

/장은성 기자

2023년 전북직업교육혁신지구 사업 성과 빛났다

전북자치도교육청, 성과보고회서 교육부장관 표창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교육부 주관 2023년 직업교육 혁신지구 성과공유회에서 전북직업교육혁신지구 사업이 교육부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 사업은 교육청과 지자체, 직업계고, 지역기업, 지역대학이 협력관계를 구축, 직업계고 기술 인재를 육성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2월 교육부 공모를 통해 선정됐다.

전북직업교육혁신지구는 전북교육청과 전북도가 공동으로 스마트농생명·바이오 산업 중심으로 지역인재를 양성하고, 직업계고와 지역기업 및

지역대학, 유관기관과 연계해 취업 및 후속교육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전북교육청은 분청 7층에 직업교육혁신지구지원센터를 구축하고, 전담인력을 배치하는 등 안정적인 사업 추진에 힘써왔다.

또한 채용연계형 교육과정, 명인멘토스쿨, 유관기관 심화교육, 취업박람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도내 직업계고 학생 7,447명 중 21.4%(인 1,594명)가 참여했다.

직업계고 학생들의 취업을 제고하기 위해 도내 우수기업 49곳에 직업교육 협력 위촉장도 수여했다.

특히 전북중소벤처기업청과 연계해 기존 중소기업 채용박람회를 직업계고 취업박람회로 변경하고, 직업계고 재학생 및 졸업생이 우수 중소기업과 만남의 장을 제공하기도 했다. 그 결과 직업계고 재학생 19명, 졸업생 등 총 51명이 취업에 성공하는 성과를 거뒀다.

서거석 교육감은 "전북직업교육혁신지구는 사업추진 1년 만에 교육부장관 표창 수상이라는 성과를 냈다"면서 "직업계고 학생들이 지역 산업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전문 기술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자체, 기업, 대학, 유관기관이 힘을 모아 지역 기반의 직업교육 협력체계를 만들어 나가자"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경쟁력 있는 식물검역관·검사원 배출 돕는다

전북대, 19일부터 2주간 자격시험 집합교육... 시험은 내달 13일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는 3월 13일 열리는 2024년 식물검역관 및 식물검사원 자격 전형시험을 앞두고 경쟁력 있는 검역관 배출을 위한 집합교육을 2주 동안 실시한다고 밝혔다.

식물검역관 및 식물검사원 자격 전형시험 집합교육은 지난해부터 전북대 식물방역대학원이 위탁 운영중이다.

지난 19일부터 2주간 전북대 농업생명과학대학 2호관 강당에서 이번 시험을 준비하는 29명의 검역본부 신입 직원들이 참여해 수출입 검역과 관련된 수출입 식물 검역, 검역제도, 식물병해충 위험분석 및 소독, LMO 국경검사, 병해충 진단 방법 등 검역 실무에 실질적인 역량 강화를 위한 이론과 실험 실습이 진행됐다.

19일 열린 첫 교육에서 검역본부 구운모 주무관은 '식물방역법'에 대한 강연을 통해 농업업 생산의 안전과 증진에 있어서의 법령의 가치와 목적, 그리고 식물 수출입검역에 있어 법령 기반의 규제와 기준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전북대 김소라 교수(식물방역학과)는 '식물해충(나비목)'에 대한 강연을 통해 실제 검역현장에서 발견되는 나비목 해충들의 구별방법과 관련 금지검역해충의 특징에 대해 설명하면서 국가 생물안보를 위한 검역의 중요성을 전했다.

한편 이번 교육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3월 4일까지 체계적인 교육을 이수하고, 3월 13일 식물검역관 및 식물검사원 자격시험에 응시하게 된다.

식물방역대학원장인 추병길 농업생명과학대학장은 "국가검역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현안 해결을 전문적으로 진행하는 검역관이 많이 배출돼 농업축산검역본부가 더욱 발전하길 희망한다"며 "집합교육을 계기로 전북대학교-농림축산검역본부와 교육 및 연구 협력체계를 구축해 식물 수출입 식물 검역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교류와 협력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학교는 3월 13일 열리는 2024년 식물검역관 및 식물검사원 자격 전형시험을 앞두고 경쟁력 있는 검역관 배출을 위한 집합교육을 지난 19일부터 2주 동안 진행하고 있다.

호원대, 교육 인증제 운영... 혁신 지속화

호원대학교(총장 강희성) 교육혁신처 교육성과혁신센터는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인증제를 운영하며 교육혁신 및 성과확산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이번 교육과정 기본인증 심사에서는 K-뷰티소재학과, K-푸드창업학과, K-콘텐츠제작학과, 사회복지상담학과의 인증을 획득했다. 2024학년도 신입 학생을 처음 모집하는 'K-미래인재대

학'에서 전 학과의 교육과정 인증을 취득한 것은 의미가 있다.

2023학년도 2학기에 개설된 교과목을 대상으로하여 내외부 전문평가단을 구성하여 인증평가를 실시한 결과, 30개 교과목이 기본인증을 획득했다. 최종 전공Lab2(실용음악학부 전유나), 실용한국어2(교양과 고미정)가 기본인증-우수 교과목으로 선정되어 2월 11

시 30분 호원대 총장실에서 기본인증-우수 교과목 시상식을 진행했다.

호원대학교는 2018년 이후 교육과정 및 교과목 인증제도를 시행하여 교육의 질을 제고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확산·고도화하는데 힘쓰고 있다. 강희성 총장은 "우리 대학이 선도적으로 시행한 교육과정 및 교과목 인증 제도는 향후 지속적으로 확산할 예정이며, 향후 자율적인 교육혁신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권산-김광근 기자



전주대학교는 지난 20일 본부 접견실에서 싱가포르 테마섹 폴리테크닉대학교와 상호 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글로벌 대학 도약 위해 정진'

전주대, 싱가포르 테마섹 폴리테크닉대학교와
비즈니스 경영·패션 분야 공동 프로그램 운영 등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는 지난 20일 본부 접견실에서 싱가포르 테마섹 폴리테크닉대학교와 상호 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은 싱가포르 테마섹 폴리테크닉대학 피터 램(Peter Lam) 총장과 국제교류원 림 켈링(Lim Teng Leng) 원장이 직접 전주대학교를 방문해 박진배 총장과 재해금 국제교류원장 등 관계자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협약은 양교가 공동으로 학술 연구, 교류 프로그램, 학생과 교수 교환 등을 추진함으로써 교육 교류 및 연구 분야에서 상호 발전을 위한 목적으로 이뤄졌다.

주요 협력 내용은 호텔경영, 비즈니스 경영, 전통음식 조리 및 패션 분야 공동 프로그램 운영, 학생과 교수 교환 프로그램을 통한 상호 이해 증진과 국제 경험을 제공, 학점 상호 인정 협정 등이다. 한편 2022년 테마섹 폴리테크닉 대학은 전주대 문화관광대학과 맺

은 파트너십 협정에 따라 10명의 싱가포르 학생이 전주대 호텔경영 학과에서 2주 단기 연수를 성공적으로 시행한 데 이어 이번 협약으로 올해는 범위를 넓혀 3월에 27명의 싱가포르 학생이 전주대학교로 단기 연수를 올 예정이다.

피터 램 총장은 "한국의 전통문화 수도인 전주시에 있는 전주대학교와의 협력은 테마섹 폴리테크닉 학생들에게 더 넓은 세계관을 제공할 것이며, 이러한 양교의 강점을 결합해 미래 산업을 이끌어 갈 인재 양성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전했다.

박진배 총장은 "싱가포르 국립 테마섹 폴리테크닉대학교와의 협력은 전주대의 국제화 노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양교의 협력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고, 교육 및 연구 분야에서 국제화의 발판을 마련하는 등 글로벌 대학으로의 도약을 위해 계속 정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전북자치도교육청, IB 프로그램 본격 가동

대학 연계한 교사 역량 강화

IB 인증 교사 양성 대상자 45명 선정... 1년 비학위과정 지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IB 프로그램 도입에 따른 대학과 연계한 교사 양성에 나섰다.

21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국제 바칼로레아 본부(IBO)와 오는 3월 협력 각서(MOC)를 체결할 예정인 가운데 IB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IBEC 대상자를 선발했다고 밝혔다.

IBEC인 IB 교원 자격증으로, IB 본부(IBO)의 승인을 받은 대학에서 IB 교육 전문가를 양성하는 과정이다.

IB 프로그램 운영학교(이하 IB 학교) 및 일반학교의 신청을 받아 총 45명을 선발했다. IB 학교 교사는 지원자 33명을 전원 선발하고, 일반 학교 교사는 1차 서류 심사를 거쳐 32명 중 18명, 2차 면접 심사를 거쳐 최종 12명을 선

정했다. IBEC 과정은 △IB 교수·학습 접근법 △IB PYP(초등학급 공동체 구축 △IB MYP(중학교 과정), DP(고등학교) 교육과정 △IB 평가 등으로 구성됐다.

이에 전북교육청은 남서대학교와 한동대학교 등 2개 대학과 연계해 1년 비학위과정을 3월부터 진행한다. 학기 중에는 온라인 과정으로, 방학 중에는 집합 과정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IBEC 양성 과정 선발 교사는 IB 프로그램의 안정적인 운영을 돕기 위해 IB 학교 교사는 학교 전달 연수를, 일반 학교 교사는 IB 프로그램 입문을 지원하기 위한 과정별 자료 개발 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장은성 기자

전주비전대, 2023년 ESG 경영실천 공모전

전주비전대학교 혁신지원사업단(단장 박용균)은 21일 2023년 ESG 경영실천 활성화 및 신규과제 발굴을 위한 공모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학생, 교직원 등 대학 구성원을 대상으로 ESG 경영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ESG 경영실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수렴하고자 2022년에 이어 두 번째 진행됐다. 외부전문가와 내부위원 등 총 6인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 블라인드 채점방식을 적용해 심사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높였다.

특히, 이날 열린 시상식에서 대상은 기획실 황성태 실장이 제안한 'ESG 가치실현을 위한 Paperless Exam'이, 최우수상에는 물리치료학과 신현경 학생이 제안한 '우리 학교에서도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학생 및 교직원들의 ESG 경영이 필요합니다.'가 각각 선정됐다.

한편 전주비전대학교는 ESG 경영을 위해 종이없는 회의(Paperless) 진행, 태양광 발전설비 구축, ESG 관련 프로그램 운영 등을 실천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원광대, 노동부 '고교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사업 선정

원광대학교(총장 박성태)가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고교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사업에 선정됐다.

2024년 3월부터 2025년 2월까지 국비 2억 8천만 원이 지원되는 이번 사업 선정으로 원광대는 도내에서 처음으로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포함해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3개 사업을 모두 수행하게 됐으며, 전북특별자치도 취업지원 서비스 선도 대학으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원광대는 '고교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사업과 함께 고교학점제, 재직자 특별전형, 대학혁신지원사업 등 대학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해 다양한 공동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지역에 필요한 인재를 성장시키는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고교 졸업예정 1년(사회 진출 준비), △취업 후 3년(사회 안착), △진학 4년(후 학습), △2년(정주 지원) 등 10년 커리어 성장 경로 설계를 지원하는 '일삼사이' 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이다.

/익산=이재훈 기자



전주기전대, 웰니스산업협회와 협약 체결

K-웰니스 전문 인력양성 '맞손'

전주기전대, 웰니스산업협회와 협약 체결

전주기전대학교(총장 조희천)는 지난 20일 (사)한국웰니스산업협회와 K-웰니스 전문 인력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전북특별자치도의 K-웰니스 도시 선정에 발맞춰 웰니스 전문 인력양성을 위해 전주기전대학교와 한국웰니스산업협회가 주관하게 된다.

웰니스는 웰빙(Well-Being), 행복(Happiness), 건강(Fitness)의 합성어로 건강한 신체·정신·사회활동을 추구하는 범국민적 아젠다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국내외 행사 협력을 통한 국민의 행복·건강 증진, 전문기술인력사양 지원, 전북 자치도 커리어사업 고도화 등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조희천 총장은 "전주기전대학교와 한국웰니스산업협회의 협약을 맺어 기

쁘다"며 "이번 협약을 발판으로 전북특별자치도 'K-웰니스 도시'의 전문 인력 양성에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주기전대학교는 △원주권 혁신융합캠퍼스 구축사업 △LINC3.0사업(교육부) △전북 도농상생형 플러스사업(고용노동부) △메이커스페이스 운영사업(창업진흥원) △커플링사업(전북특별자치도) 등 2024년 국고지원 사업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장은성 기자